

: 2025 11 8 6:04



참당귀 / Angelica gigas Nakai

구분	설명
생 <del>물분</del> 류	식물
속국명	당귀속
과국명	산형과

요약설명: 산형과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남부, 중부, 북부의 산 계곡의습기가 있는 땅에서 자란다.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며, 만주, 일본에도 분포한다. 분포지역: ▶만주, 일본에 분포한다. ▶남부, 중부, 북부의 산계곡습기가 있는 토양에서 자생하며 약용식물로 재배하고 있다. 형태: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크기: 높이가 1~2m정도에 이른다. 꽃색: 자주색 개화기: 8월,9월 뿌리에서 난 잎과 밑부분의 잎은 잎자루가 길며 1~3회 깃모양겹잎이다. 작은 잎은 3개로 완전히 갈라지고 다시금 2~3개로 갈라진다. 갈라진 조각은 긴타원 모양 또는 달걀 모양이고 겹톱니가 있다. 정소엽은 잎몸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잎자루가 있고 겉면의 맥 위와 가장자리가 거칠다. 윗부분의 잎은 퇴화되고 잎집이 타원 모양으로 커진다. 용-9월이 되면 큰 겹우산모양꽃차례가 가지와 줄기 끝에서 발달하고, 15~20개로 갈라진다. 끝에 20~40개의 자주색 꽃이 달린다. 총포는 1~2개이고 잎집처럼 커지며, 작은 총포는 5~7개이고 가늘다. 열매는 타원 모양이고 넓은 날개가 있다. 줄라는 곧게 서고 자줏빛이 돌며 세로맥이 있다. 높이는 1~2m이다. 굵은 뿌리와 함께 갈라져 나온 뿌리가 있다. 선골짜기 냇가 근처에서 자란다. 당귀는 전국적으로 재배가능하나 중부 이북지역의 서늘한 고산지역이 유리하다. 충분한 빛이 필요하고, 시설이나 지붕이 없는 보통 땅에서 겨울을 나며 16~30℃에서 잘 자란다. 진흙이 많은 땅에서 후울을 나며 16~30℃에서 잘 자란다. 진흙이 많은 땅에서는 뿌리가 갑자기 못하며 모래땅에서는 잔뿌리가 많이 생겨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. 이 작물은 이어 짓는 것을 싫어하므로 한번 심어서 수확한 곳에는 2~3년동안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좋다. 씨앗을 뿌려 번식시킨다. 키가 큰 것이 단점이지만, 쓰러지지는 않는다. 잎자루를 생으로 까서 먹고 한참 있다가 블음 마시면 늘맛이 달다.
까져 더 : '하찬 이 나가 무은 II'지며 무대이 너 !